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총계획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은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조선로동당창건 68돐까지 승마구락부를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실내물놀이장에 들어서시어 현관홀을 주의깊게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의 립상을 잘 모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엘도라도식으로 꾸려지고있는 실내물놀이장의 수영장과 어린이수조, 덕수수조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수조, 한증탕, 샤워실, 식당, 편의봉사시설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건설자들이 기술지도서의 요구대로 시공구정을 잘 지키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의 2층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물결파도식미끄럼대수조, 판성렬차식물미끄럼대수조 등 최신식물놀이수조들이 꾸려지는 야외물놀이장을 부감하시면서 건설이 완공되어 현대적인 물놀이휴식비드들까지 갖추어지게 되면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회한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건물 만장에는 배구장과 바드민턴장, 톱구장이 설치되고 야외물놀이장주변에 로라스케트장, 모래터배구장 등 체육유희시설들이 건설되는 문수물놀이장은 다기능적인 체육봉사시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기념일까지 문수물놀이장을 세계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

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0월 1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계획대로 드림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제기일안에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무조건 완공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혁명적실천으로 받들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 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립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첨단설비들이 그르흔히 갖추어진 생산공정에서 조립되는 전자제품들을 보시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아리랑》 손전화기의 성능과 질, 포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현대적인 손전화기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음으로써 손전화기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창조적기공과 애국열의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특히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보안성이 철저히 담보된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개발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며칠전부터 공장에서 생산한 《아리랑》 손전화기들을 출품하고있는데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대단히 높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 11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살림집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울려다보니 아찔하다

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호동 3층 1호살림집을 돌아보시였다.

올해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을 짓고 내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평성지주와 경치좋은 연풍호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도 건설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대학들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기술사들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자살림집을 돌아보시고 살림집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을 무조건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영웅부대의 영예를 떨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가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룡악산림과 보통강림 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조국해방 68돐을 앞둔 14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국내외 최우수선수들이 망라된 룡악산림과 보통강림사이의 남자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판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에게 주실수 있는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경기장에 차넘쳤다.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축구경기를 보게 된 감격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기는 보통강림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두 팀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을 통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선수들과 전도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망라된 두 팀이 대전하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은

시작부터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우리 식의 경기전법을 구현하여 경기를 빠른 속도로 운영하는 량팀 선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기는 시종 치열하였다.

두 팀은 선수들의 결합능력을 높이고 든든한 방어로부러 역속속공이행으로 자기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맹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측면들과와 짧은 련락으로 득점의 기회를 노리던 룡악산림의 전술이 은을 내어 전반전 33분경에 공격수 19번선수가 문전 16m 지점에서 강한 차넣기로 첫 골

을 넣었다.

별차기회를 마련한 보통강림에서 전반전 36분경 공격수 8번선수의 묘한 깎아차기가 성공되어 전반전경기는 1:1로 비긴 가운데 끝났다.

후반전경기에 들어와 룡악산림 선수들은 육체, 기술적특성을 잘 살리고 공처리속도와 좌우기동을 민활하게 하면서 경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11분경 룡악산림의 방어수 12번선수가 멋진 머리반기로 귀중한 환골을 기록하였다.

선수들의 강인한 투지와 높은 축구기

술이 련이어 발휘된 경기는 룡악산림이 2: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관람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며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비타민 C 공장 준공식 진행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비타민C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되였다. 인민의 부리중진을 조선로동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공장은 생물공학적방법에 의한 첨단 생산공정을 확립한 현대적인 비타민C생산기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장군님의 유희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비타민C공장 준

공식이 9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 박순철이 준공사를 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 7차 북남당국실무회담 진행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7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북과 남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업지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공업지구의 발전적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질수 등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납품인원의 안정적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업지구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한다.
2. 북과 남은 이번 공업지구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및 관련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한다.
4.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배양하는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5.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험행위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6. 북과 남은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통행보장, 인터넷통신과 이동전화통신보장,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7.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

에 대해 국제적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간다.

① 북과 남은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적용되는 로부,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간다.

③ 북과 남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별관세인정 등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북과 남은 공동해외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북과 남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북과 남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화해와 협력, 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

원수님의 기쁨과 만족

인민들이 유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구상이요 결심이다.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먼지가 흩날리는 룡라도의 건설장에서 몸소 수습에 설계를 그리시며 세월이 흘러도 한결의 아쉬움도 남지 않는 인민의 유원지건설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던 그이의 인민사랑에 의해 지난해에만도 창전거리와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과 통일거리운동센터,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같은 인민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수놓처럼 일떠섰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떠받들려 울헤에도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비롯한 새로운 창조물들이 완공을 앞두고 일떠서고있다.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과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어 공사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미림승마구락부를 일떠세우면 군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실내물놀이장의 2층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도수조, 초음파수조, 물결파도시미그럼대수조, 판성렬차식물미끄럼대수조 등 최신식물놀이수조들이 꾸러지는 야외물놀이장을 찾으신 후 기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완공되면 현대적인 물놀이시설비둘기까지 갖추어지게 되면 정말 멋있을 것이고, 최할것이라

고 하시면서 앞으로 문수물놀이장을 찾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하여 이곳을 사랑할지가 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럽다고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짜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완공의 날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지도자의 고

대한 품모를 가슴뜨겁게 체했었다.

오직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 인민에 대한 열렬한 헌신복무의 정신을 지닌 령도자만이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자신의 락으로 여기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칠수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맡기고자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자신께서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우리는 장군님께 바치는 충정이 모자랐던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시는 불변의 신념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은 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세상에 알려진 과학적발명이 잠간사이에 낡은것으로 되고 새 과학기술개발이 련속 이루어지며 국가발전과 사회진보에 추동하고있는것이 오늘날의 정보산업시대이다.

강성국가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통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견지명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 공화국은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최첨단물자의 열풍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혁신적성과를 달성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의 질적비약으로 강성부흥의 미래를 앞당겨를 원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주정복분야에서 최첨단물자의 열풍을 일으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아올리도록 하시었다.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그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국산화한 공화국의 실용위성이 우주로 솟구쳐오른것은 과학기술로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전람회장과 무장장비관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찾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하나의 건설물을 보고 예술공연을 보시면서는 남들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도약하여 앞서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 기술자들에게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과학기술중시령도에 따라 중공업의 시련을 겪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무장조국의 배일을 위해 CNC화를 비롯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최첨단수준의 선진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고 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리상과 만만한 배짱을 가지도록 하시고 온 나라에 최첨단물자와열풍이 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이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 우리 인민은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강대하고 눈부시게 번영하는 조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서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시고 걸으시었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최첨단물자와의 행군길을 앞장서 지시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과학기술로 번을 날고 그 힘으로 세계에 올라가는 강성국가건설의 굳건

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기술 중시구상과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지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온 나라에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시었다.

새 세계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물자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높이며 나아가서 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함께 대해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의 불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 비범한 령도에 의해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선진기술분야를 끊임 없이 돌파하며 앞날의 지식경제강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밝은 개일

조국을 찾는 우리의 심정은 류다르다. 마치 오래간만에 부모를 만나는 자식마냥 마음이 설레이군 하는 우리들이다.

그때마다 내가 찾게 되는 결론은 조선은 영원히 나의 모국이고 우리모두는 달리는 뿔수 없는 민족의 일원이라는것이다.

지난날 우리 부모들은 약소국의 백성이 된 신세를 탄탄하며 정든 고국산천을 등지고 낯설은 이역땅으로 류량의 길을 걸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오늘은 가슴펴고 살면서 당당한 자주민족의 일원이라는 긍지감을 마음속깊이 절감하고있다. 방국의 도란속에 지리멸렬되어가던 우리 겨레를 구원하시고 두번다시 자주권을 유린당할번 한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부강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건국의 아버지이신 김일성주석의 은공을 우리는 잊지 않고있다.

《사회주의 종말》을 떠들며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고립정책등으로 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새 령사를 펼치셨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인 6.15시대를 열어놓으신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조국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전승 60돐 경축행사를 보면서 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음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처럼 젊고 사랑과 힘이 넘치는 그분의 존안과 출중한 령도품모에서 나는 공화국이 사회주의의 보루로, 선군의 조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우리들과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그분의 친근한 동포애와 열화같은 친화력에 매혹됐고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비롯한 모든 행사들을 성대히 거행하도록 하신 그분의 령도의 비범성에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길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아래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최할한 현실에서 민족의 밝고 창창한 앞날을 보며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가다듬게 되었다.

재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김정렬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

전승 60돐과 8.15해방 68돐을 경축한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갈마드는것은 평화에 대한 생각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과 7.27전승을 떠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습성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수호에 기울이신 로고와 령도를 떠나서 오늘의 평화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무릇 평화는 인류최고의 지성이라고도 하고 문명의 미덕이라고도 한다.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갈망에 대해 한세기 전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이 잦아졌을 때 도이칠란드의 한 반전소설가는 언제까지 대포소리가 정치, 령사, 문학의 추주제로 되어야 하는가,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마가 땅을 시체로 뒤덮고 지구가 불타면서 들끓는 참극의 령사가 끝나고 평화의 령사가 닦을 올릴 그날은 과연 오기를 그만두었는가고 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평화는 인류의 지향이고 갈망이다. 반세기 이상이나 분열의 고통과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고있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와 통일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평화와 안정은 민족의 발전과 번영,

조국통일의 전제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와 침착한 정세가 가시지 않는 한 대결과 불신만이 악화되고 진정한 화해나 단합, 협력이나 교류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외세와 민족분열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책등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민족의 안정을 파괴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군사평론가들이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이 언더면 전세계적으로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의 큰 도시의 파괴, 10억명이상의 희생과 전지구위의 사막화라는 무서운 대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추산한 바이지만 크지 않은 조선땅에서 발발할 전쟁피해의 참혹성은 이처럼 엄청난것이다. 세계가 우려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고 제3차 세계대전이 나 세계열핵전쟁과 같은 새 전쟁이 미연에 방지되고 평화

가 조성된다는 평화와 안전을 함께 담보할수 있는 통일방식을 합의하시어 내외가 조선민족의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던것이다. 동등선언이 전체 조선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전폭적인 지지환영을 받은 리유의 하나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수호에 적극 기여한것이다.

평화는 곧 창조적건설이며 평화적환경이 성공적인 건설과 번영을 담보한다는것은 보편적진리이다. 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이 나라는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전은 필수적이며 6.15시대에 기여한 민족분열을 끝장내려는 온 겨레에게 있어서도 사활적이다. 평화수호, 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통일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지향이다.

외세와 민족분열세력의 끊임없는 반평화위협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 공화국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남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조선민족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6.15시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공헌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께서 6.15북남공동선언을 통해 북과

조국해방 68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회원장 워드프르 베르브,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스. 엠. 크라마렌코 등이 연설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리 설

본사기자

평화수호의 길에서

본사기자 리 설

본사기자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의 대단함으로 평화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6.15 민족공동위원회가 해내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조국해방 68돐에 즈음하여 15일 해내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독립을 쟁취한 뜻깊은 조국해방의 날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불법무법으로 강점한 일제가 40여년간에 걸쳐 야수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회생을 강요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아물수 없는 원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늘 날까지 과거 죄악에 대해 사회와 배상은커녕 침략의 력사와 범죄를 은폐, 외국하는데 급급해하고있으며 오히려 독도강탈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의 침략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국해방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주요한 과제는 항일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함이라고 강조하고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국해방과 동시에 외세에 의해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한 우리

겨레는 전쟁의 참혹한 재난과 함께 반목과 적대의 쓰라린 세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루어는 우리 민족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2000년 6월 력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으로 6.15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함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며 해내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 하고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신뢰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동의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는데 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을 밝힌 7.4공동성명이 있고 새 세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결정적역할을 열어야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다.

해내의 온 겨레가 북남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 리행을 위한 길에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금강

산관광과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재개하며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적교류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의 협력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등 경협이 쌓인 북남관계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조선반도에 평화환경을 조성하는것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겨레가 바라고있는것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번영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는것은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방도이다.

북남사이에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훈련과 비방중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모든것을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지향시켜야 한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고 군국주의부활을 저지시키는것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기도를 강력히 저지시켜야 한다. 일본의 현 정권은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겠다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기도하고있다.

지어 나치식으로 평화헌법을 비밀리에 개정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언도 서슴지 않고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꾸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 경우 그들의 침략목표는 바로 조선반도가 될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다른 한편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있다. 간포대지진을 계기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살육한 대학살만행이 일어난지 9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재일포도들에 대한 테로행위가 계속되고 그들의 정치적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재침착등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모든 죄악에 대한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항일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함으로 평화번영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자.

이것은 조국해방 68돐을 맞이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교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온 겨레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본사기자

8.15 조국해방의 날 기념 민족공동행사 북남공동호소문

오늘 8월 15일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지 68돐이 되는 날이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40여년간이나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무장을 들고 목숨을 바쳐싸웠던 항일독립투사들과 반일의 기치아래 일떠선 온 민족의 뭉친 힘으로 이루어낸 감격스러운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다.

또다시 외세의 개입에 의한 민족분열이 지속되었기때문이다.

침략적인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고통은 6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연히 지속되고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것은 날강도적인 《가짜-타프트협정》으로 우리 민족에게 수난과 불행을 강요한 미국과 일본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근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으며 강제징용의 후손들인 재일포도들을 탄압하고 민족학교를 폐쇄하며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과 재침착등을 일삼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

국과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철저한 사회와 반성을 하며 응분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과 일본의 사회와 친핵배의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계속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다.

단군성왕의 후손들인 7천만 우리 겨레는 자주와 민족대단함의 정신을 살려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조국해방의 날인 8.15의 참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족자주통일의지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떨치고자 한다.

자랑스러운 반만년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사상과 리념의 대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단결하고 단합할 때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북과 남, 남과 북이 공동호소문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8.15는 민족공동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는 날이 되었다.

앞으로 8.15는 민족자주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날이 될것이다.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여는 8.15를 만듭시다! 조국통일 만세!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남측: 《8.15광복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120여개 참가단체 일동
2013년 8월 15일

공화국 각지 사찰들에서 《8.15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동시법회》 봉행

15일 오전 공화국북반부 각지 사찰들에서는 《8.15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동시법회》가 일제히 봉행되었다.

14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조국해방 68돐 《8.15로동자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연설한 민주로총 위원장은 《8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녀총) 등 농민단체들도 서울 종로 보신각에

법회들에서는 폐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공동발문이 봉독되었다.

연설들과 공동발문에서는 예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은 근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으며 평화는 엄중

히 위협받고있다고 밝혔다.

북과 남의 불교도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불심화합하여 북남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을 위한 현실참여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설때 대해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남조선에서 다양한 행사들 진행

남조선에서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14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조국해방 68돐 《8.15로동자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연설한 민주로총 위원장은 《8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녀총) 등 농민단체들도 서울 종로 보신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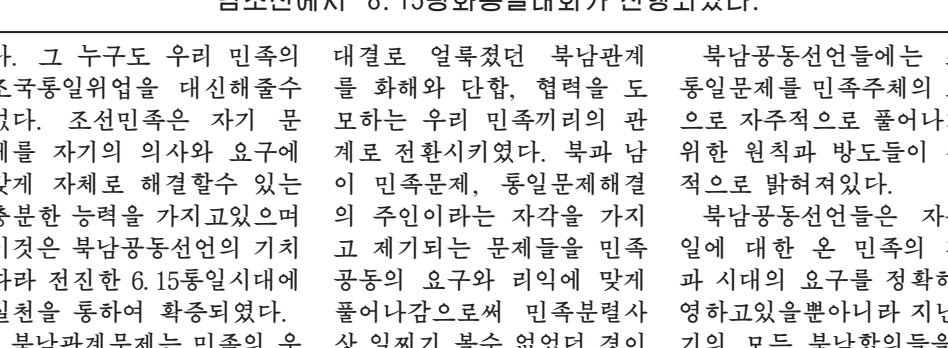
법회들에서는 폐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공동발문이 봉독되었다.

연설들과 공동발문에서는 예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은 근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으며 평화는 엄중

히 위협받고있다고 밝혔다.

북과 남의 불교도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불심화합하여 북남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을 위한 현실참여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설때 대해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8.15평화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채택되고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그 정당성이 증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화해

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채택되고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그 정당성이 증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화해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건으로 전환시켰다. 북과 남이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불수 없었던 것이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노력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관계들을 총집대성한 조국통일의 강령적 지침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생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대신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에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방도가 있고 민족번영의 출로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제게야 한다.

로재선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민족공조를 선행하여야 한다.

민족공조는 괴졸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당연한 리치이며 생존방식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려왔다.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자주통일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바로 하나의 괴졸을 이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며 함께 통일로 가야 할 동족사이의 관계이다.

북과 남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물질문화적재부들마다에 대대로 오랜 세월 한강도우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민족의 단일성이 그대로 살아있고있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민족 내부의 그 어떤 모순에 의하여 생긴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나라의 분열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통일에 대

한 열렬한 지향과 부강번영하는 조국땅에서 온 겨레가 화목하게 살려는 요구는 한결같다.

자기 집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남에게 의존해 해결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북과 남의 우리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는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해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모두가 사랑하는 민요 《아리랑》, 그 선율속에 흘러넘치는 우리 민족고유의 감정과 정서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처럼 절절하고 진하게 노래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족분렬로 겪고있는 우리 겨레의 고통과 아픔, 뜨거운 통일의 념원을 외세가 조선민족만큼 절실하게 느낄수 없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민족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고 어부지급을 얻으려는 흉심만이 있을뿐이다. 지금도 세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례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묶어 보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장장 60여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자체가 외세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조선분렬의 원흉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은 오늘도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동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할 때 피해를 입음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요, 침해당하는것은 민족공조의 리익이 어부지급을 얻는것은 침략적인 외세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도 민족공조를 통하여 실현된다.

조국통일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하건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공조는 북과 남의 우

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힘과 지혜를 합치고 보조를 함께 하는것이다. 민족공조는 민족대단결의 실천과정이며 그 구체적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공조 과정은 곧 민족대단결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국의 통일을 가장 열렬히 바라는 사람도, 통일조국에서 살아갈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을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 능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민족과 공조하는데 통일이 있다. 서로 반목하고 대결해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고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 민

조선인민은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요불굴의 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위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16돐에 즈음하여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 바르리크 미요비치가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강령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 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면적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 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선반도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김정일영도자께서는 그의 조국통일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통일이 이룩되자면 조선과 미국사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수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이 아무리 발악해도 위대한 통일강령을 받들고 조선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고려민주권방공화국을 창립하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은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은 시대의 절박한 과제

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지향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북남대결은 외세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민족분렬의 력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격화로 얻을것이란 분렬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박을 위해 관계개선을 지향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신이

명과 미래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이다. 오늘의 북남관계는 응당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이은 동족이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주체이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위해 관계개선을 지향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이 리행되던 6.15통일시대는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건으로 전환시켰다. 북과 남이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불수 없었던 것이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노력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관계들을 총집대성한 조국통일의 강령적 지침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생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대신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에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방도가 있고 민족번영의 출로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제게야 한다.

로재선

지금 남조선정국에 회오리가 일고있다.

2007년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의 공개와 전두환의 집과 그 친인척들에 대한 압수수색, 《4대강 살리기》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

현 《정권》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이른바 《원칙》의 칼을 내댔것이다.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만한 기사감들이고 현 《정권》의 《업적》을 자랑할만한 한 문장 한 문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단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표를 던지고있다.

왜서인가.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호지부지하려는 연막이고 멀어져가는 민심을 낚기 위한 클리컨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혹때문이다.

틀리는 말이 아니다.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처음부터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그 무슨 《북방한계선》문제와 얼버무려놓고 사건해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읊으로양으로 방해해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조사》초기부터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때 써먹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며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생떼를 썼다.

그러는새에 새로 임명된 정보원 원장은 6월 24일 담화록발취본을 《새누리당》의원들에게 공개해버렸다.

그 발취본은 현 《정권》에 유리하게 정보원이 외국, 가공한것이며 어느 구석에서도 《포기발언》내용이 없다는것이 인터넷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내용을 보면 사실상의 포기》라고 우겨댔다.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보다는 《북방한계선》문제가

민심 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국정조사》의 핵심안건처럼 되고말았다.

수뇌회담관련 회의록을 기록원에서 찾지 못하게 되자 구체적인 조사도 해보지 않고 대뜸 《실종》되었다고 떠들며 그 책임을 로무현과 그의 보좌진에게로 돌리며 여론을 오도하였다.

뿐만아니라 사건의 주역들인 원세훈, 김용판, 김부성, 권영세 등을 중심으로 내세울데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리저리 구실을 대며 방해하여왔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왜 《북방한계선》문제를 그리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요란히 떠들어대는가.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남조선민심의 초점을 《포기발언》에 돌려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유아무야하자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백주에 민주주의를 도둑맞힌것》이라고 평한것처럼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이 뿌리까지 드러내면 남조선사회는 《정권교체》라는 정치지진에 휘말리게 될수 있다.

이것은 장기집권을 노리는 보수세력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든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문제이다.

그것으로 보수집권세력은 이미 지난 《대선》때 단단히 재미를 보았고 《회의록실종》과 《포기발언》은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과 계속 맞세워 끌고나갈수 있는 당당한 구실로 되었다.

또 《포기발언》문제를 《안보》문제로 확대, 증폭시켜 민주주의수호와 평화통일을 웨치는 진보세력을 짓밟아버릴수 있는 구실을 마련할수 있다는것도 그 리유외 하나일것이다.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련이 은 시국선언과 촛불시위에 한마디 소리없던 보수언론이 《북방한계선포기발언》을 냐다 불어대는데 그래서이다.

남조선의 한 단체가 조사한 결과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일보》는 촛불집회와 시국

선언에 대해 2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KBS》와 《MBC》는 단 한 차례만 보도하고...

반면 《북방한계선포기발언》문제는 노상 주요기사로 다루어 왔다는것이다.

하지만 우긴다고 거짓이 진실로 될수 없으며 외곡한다고 력사가 달라질수 없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회의록실종》이 장기집권계획을 위한 보수집권세력의 음모라는 설이 나돌고있다.

한해 썩 전에 《문화일보》가 이전 《정권》관계자에서 나온 자료로 회의록이 없다는 보도를 했다는 점, 권영세 중국주재 남조선대사가 지난 《대선》에서 《집권하면 회의록을 까겠다.》고 발언한 점, 《새누리당》 김부성의원이 《지난 《대선》때 이미 내가 그 회의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왔다.》면서 부산유세 때 내용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보원에서 작

성한 발취록과 같다는 점, 이번 이 기록원에 가보니 2010년 3월이 이미 문건의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은 《새누리당》이 애초에 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정국혼란을 조작했다는것이다.

실제로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7월 23일 발표하는데 의하면 응답자의 10명중 6명이 《기록원이 《정부》, 여당을 위해 대화록을 숨기고있다.》고 응답하였다.

얼마전에도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담화록전공개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론란을 유발하고 정보원이 자료를 공개할수밖에 없이 만든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고 평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초점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해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맞춰지고 있다.

정보원규탄 시국선언에 서명한 시민수는 수만명에 달한다.

촛불집회도 수백명에서 수만명으로 늘어나 8월 10일에는 10만 명이 참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이라고 한다.

민주당도 거리로 뛰어나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게 되었다.

그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정보원개혁, 《대통령》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며 철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정보원에 대한 보수집권세력의 비호를 단호히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청년들속에서는 《대선 불법개입, 민주주의훼손의 온상

지 정보원에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취업할수가 없다.》면서 정보원취업거부운동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모략의 소굴 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완전 해체되어야 한다는것이 민심의 지향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북방한계선》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선불복》이니, 《민생의면》이니 하며 떠들어대 민심은 보수집권세력에게 등을 돌리고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첩단사건》과 같은 모략극으로 연명해왔던 과거 보수의 수법은 오늘 남조선에서 더는 통하지 않고있다.

그러한 음모적방법으로 차례질것은 민심의 증오와 규탄이며 자신들의 몰락이다.

대세와 민심의 뜻을 따르는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김정혁



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범국민 10만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남조선에서 모략적인 정치개입사건으로 하여 정보원이 인민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함께 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이라느니, 《북과 북공세력의 국정현안개입을 막기 위한것》이라느니 뉘니 하며 저들의 범죄행위를 한사코 정당화하고있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것이다.

력대로 정보원은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생겨난 첫날부터 친 미과 친 독재 《정권》의 《안보》와 제정권을 위해 《선거개입》을 또 하나의 주되는 《임무》로 삼아왔다.

정보원은 중앙정보부때인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들에서 부정행위 《선거》의 총본산으로서의 악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 주는 교훈

역을 담당수행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판단과 계획,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정치적참모기》, 《선거사령부》가 다름아닌 정보원인 것이다.

그중 일부를 보기로 하자.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때 정보원의 전신인 당시 중앙정보부는 야당후보인 김대중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기 위해 《김대중은 사생아이므로 그가 《대통령》으로 되는것은 《국가》와 국민의 망신이다.》, 《김대중은 남로당에서 활약하던 적색분자이므로 그가 집권하면 남 《한》 전체가 적화된다.》 등의 흑색선전을 일삼았다.

심지어 김대중의 집권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자동

차총돌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였으며 매일과 같이 전화와 편지로 《정계에 물러서지 않으면 너의 집과 차고를 폭파시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1987년 《대통령선거》때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에 《김대중이 당선되면 그것은 군의 참출수 있는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짚신 로태우를 《민주화의 기수》로 둔갑시키고 《로태우집권역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로태우인기작전》에 열을 올리었다.

교묘한 여론과 심리조작으로 사람들속에 여론후보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감

정을 여권지지로 유도, 강박하는것도 《선거개입》에서 정보원이 써온 또 하나의 수법이었다. 지난 13대 《대통령선거》때 당시 안기부는 내외의 각종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짚신 로태우를 《민주화의 기수》로 둔갑시키고 《로태우집권역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로태우인기작전》에 열을 올리었다.

그뿐아니라 그들은 만일 《대선》에서 《민정당》 후보인 로태우에게 표를 찍지 않는 사람은 북에 동조하는 빨갱이로 낙인찍힐것이라는 압력 당하여 무리로 달려들어 때려죽였고 신민당 총남 금산 지구당 위원장 양삼성이 신민당을 탈당하여 박정희를 지지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아무도 모르게 끌어다 흉기로 란도 질하여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선거》직후 《공화당》 지지표가 적게 나온 지역들에 강대들을 내몰아 주민들의 판자집을 강제로 헐어버리고 닥치는대로 구라하는 망동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것을 실현해왔다. 바로 이같은 투개표부정으로 1991년 6월 《광역의회선거》때 당시 안기부는 당초에 계획했던 《민자당》의 석확보율 65%를 조작하였으며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00만표이상을 부정취득케 했다.

정보원은 여론후보의 당선 조작을 위해 잔인한 살인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때 당시 중앙정보부 살인마들은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제4투표소앞에서 한 청년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 한마디를 했다가 하여 무리로 달려들어 때려죽였고 신민당 총남 금산 지구당 위원장 양삼성이 신민당을 탈당하여 박정희를 지지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아무도 모르게 끌어다 흉기로 란도 질하여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선거》직후 《공화당》 지지표가 적게 나온 지역들에 강대들을 내몰아 주민들의 판자집을 강제로 헐어버리고 닥치는대로 구라하는 망동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정보원은 《선거》전에 미리 후보들의 당락과 여야의 득표율을 정해놓고 무더기투표, 가짜투표, 여론투표, 대리투표, 표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에 사전표 깔기, 컴퓨터조작 등으로 그

단평 기이한 창안품

최근 《새누리당》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무슨 《공모전》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가관은 《《새누리당》을 마음껏 욕하라》는 구호밑에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을 《공모전》의 주제로 들고나온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알람문을 통해 《《새누리당》에 불만있는 2030여러분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명석을 깔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비난과 질타로 인해 《새누리당》이 발전할수 있습니다.》면서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하였는가 하면 《욕에 관심이 깊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 정치에 관심없는 청년 대환영》이라는 참가대상 문구도 내걸고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와 시상도 한다고 요란하게 광고까지 하고있다.

낫가죽이 폼발통보다 더 두터운 《새누리당》만이 교안해낼수 있는 기이한 창안품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전역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거대한 촛불시위가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정보원을 감싸도는 《새누리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날로 높아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고 단전을 부리니 이 《공모전》이라는것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했는가.

속담에 속 검은 사람일수록 비난두루마기를 입는다는 말이 있다.

《새누리당》이 마치도 남조선인민들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치를 해나갈것처럼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뒤가 썩는자들이 민심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한갓 연극일따름이다.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요구는 거역하며 오직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새누리당》이 민심기만극을 위한 온갖 추태를 벌려놓고있지만 그로 인하여 차례질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차디찬 랭대와 멸시뿐이다.

리광성

《민주주의가 망했다, 공영방송이 망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대선개입》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이를 면하고 비하하는 보수언론들의 비렬한 보도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6일 서울의 《KBS》방송사앞에서는 남조선의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정원정적공작대선개입 진상추소 및 폐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기서 《언론은 굴종 대신 보도투쟁 나서라》고 웨치면서 《《KBS》, 《MBC》는 더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 앞으로 공영방송이란 말을 쓰지 말라.》, 《민주주의가 망했다. 공영방송이 망했다.》, 《《KBS》와 《MBC》가 《정권》의 시녀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중, 동의 경우 1차 범국민촛불집회가

열렸던 6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일간지면에서 시국선언이나 촛불집회내용을 다룬 기사가 단 한건도 없었다.

대신 《조불집회는 대선불복의 움직임이다.》, 《2008년 광우병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과 주축축이 같다.》, 《진보와 보수의 맞붙집회다.》라는 식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렸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있다. 검찰수사결과 《국정원대선개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난해 경찰의 중간조사결과발표가 조작된것이 입증되었지만 방송은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 무략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공영방송은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NLL》론란을 재점화시키자 총성경쟁을 하듯 물타기에 앞장섰다.》, 《점점 촛불집회 참여인원이 늘어나고있지만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것 같다.》, 《량심이 살아있는 언론사

내부성원들은 더이상 굴종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도투쟁에 나서라.》고 호소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정권》을 미화했던 광주 《MBC》가 시민에 의해 불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새누리당》은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야당에 의한 정보원의 전, 현직 직원의 매관매직사건으로 몰아가며 정보원을 감싸안는데 급급하였으며 야당은 제기된 자료들로 정보원의 조작적인 《대선개입》을 하나하나 폭로하였다.

문제는 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지난 5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정보원의 인터넷대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떠들어댔것이다. 이에 맞장구를 치며 《새누리당》은 정보원 대글활동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느니, 《대글의혹사건》의 본질은 《정상적인 정보원 《대북》 심리직원의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정보원의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새누리당》은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야당에 의한 정보원의 전, 현직 직원의 매관매직사건으로 몰아가며 정보원을 감싸안는데 급급하였으며 야당은 제기된 자료들로 정보원의 조작적인 《대선개입》을 하나하나 폭로하였다.

문제는 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지난 5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정보원의 인터넷대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떠들어댔것이다. 이에 맞장구를 치며 《새누리당》은 정보원 대글활동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느니, 《대글의혹사건》의 본질은 《정상적인 정보원 《대북》 심리직원의

활동을 《대선개입》행위로 호도한 정치공작》이라느니 뉘니 하며 두둔해나섰다.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흔들리는 집권안보를 어떻게 해서나 수습해 보려는 보수세력의 비렬하고 치졸한 자세를 그대로 보여 주고있다.

여기에서 야당의원들은 《대선》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정보원의 대글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이 정보원의 대글을 무더기로 발견하고도 《대글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보고하겠다.》 등의 발언내용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

책임회의를 위한 구차한 변명

상에서 저지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야당과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기간과 허위모략선전으로 일관된것으로서 그들을 좌파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 제압하고 보수세력들의 집권연장을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일관되어왔다.

여기에서 야당의원들은 《대선》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정보원의 대글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이 정보원의 대글을 무더기로 발견하고도 《대글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보고하겠다.》 등의 발언내용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

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직접 정보원의 대글증거를 삭제하는 패쇄회로동영상자료를 공개하였다.

뿐만아니라 7월 25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이건 언론보도에는 나가야 할것이 아니다. 나갔다가는 정보원 큰일난다.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것은 어떻게 알겠어.》라는 대화록까지 폭로하였다.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더라도 지난해 《대선》시기 정보원은 인터넷상에 야당세력들을 비방 모해하는 수많은 대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것은 결코 한두명이 할수 없는것으로서 정보원이 《대선개입사건》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참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정

보원은 입이 열두개라도 할 소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구차한 오그랑수까지 써가면서 저들의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고있으니 낫가죽이 두꺼워도 이만 저만 아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대북》 심리작전을 하겠다던 정보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국민》 심리작전을 펼쳤다. 이는 정보원 설립취지에 반하는 완벽한 《정보원법》 위반일뿐 만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고있다.

남조선의 정보원이 《대선개입사건》의 진면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그것은 오히려 민족반역집단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낼 뿐이다.

림소영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경제건설과 평화수호를 위하여

지금 공화국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있다.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하루빨리 부강국상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행복한 락원을 펼쳐 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승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숙고한 뜻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8월의 쯤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계신다.

완공단계에 이른 과학자살림집건설장과 새로 개건되고있는 평양체육관,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과 문수물놀이장건설장, 새형의 《아리랑》순전화기를 연구개발하여 생산을 진행하고있는 5월 11일공장,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건설장...

그이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은 어느 곳이나 다 인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위로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대상들이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신 이후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나라의 전력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강원도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대규모 축산기지와 최첨단 마식령스키장이 자기의 자태를 완전히 드러내놓고있다.

대건설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들마다에서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이 진격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 제기고있다.

레년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있는 속에서도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들에 훌륭히 꾸려진 물놀이장들과 해수욕장에서 높이 올리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주공방향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의 정책이 지극히 정당하며 그것이 실질적인 은을 내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화국의 이러한 노력이 웅대한 결실을 맺자면 평화적환경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어야 경제건설에 힘을 총집중할 수 있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

지금 평화적환경을 보장하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있는 중요대상건설들은 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과 직접 관련되는것들로서 이것만으로도 평화에 호정책이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평화에 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최근에도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주동적이며 대법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번 개성공업지구정착을 위한 제7차 북남 실무회담에서 겨레를 기쁘게 하는 귀중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파국에 처한 공업지구의 운명을 어떻게 하나 구원하고 그것이 북남관계개선에로 이어지게 하려는 공화국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의 산물이다.

사실들은 공화국이야말로 누구보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라는것을 실증해준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경제강국건설과 평화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 높이 온 나라 각지의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중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올해 안으로 무조건 끝내자!》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날에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대화봉정점 스키출발지구역 휴식장건설과 중간휴식장건설, 눈포저지건설,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건설대상은 방대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강한 비바람으로 난관이 적지 않지만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대화봉정점 스키출발지구역 휴식장건설에서 2배이상의 속도가 창조되고 기초공사와 골조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눈포저지의 여수로바닥을 들어내기 위한 방대한 공사도 3일동안에 끝낸데 이어 한주일동안에 해제하여야 할 저수지옹벽쌓기공사를 하루동안에 끝내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은 세로등관개간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세로등관개간전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인공굴관조성을 위한 등관같이계획을 만난 날부터 한달이 넘는 기간에 96%이상 수행하여 공화국창건 65돐전으로 인공굴관조성을 끝낼수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 온 나라에 타번져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자연풀판조성에서도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2만여정보에 대한 작업목배기와 지대정리를 끝냄으로써 계획된 면적의 자연풀판을 조성해놓았다.

돌격대원들은 가을철씨뿌리기준비도 동시에 힘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질 좋은 거름과 흙모산비료, 소석회 등 가을철씨뿌리기에 필요한 토양개량제생산실적은 근 5만톤에 이르렀다. 세로등관건설에서 신군조국의 창조본태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결사의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회천발전소 2단계공사인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회천 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이미 추진해오던 배수심m길이의 토인제공사를 다치면서 가을맞이한 구간에서 진행해야 할 여러 구조물들의 굴착과 기초공크리트치기를 본태있게 내밀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토

도벽 등 선형구조물들의 기초공크리트치기를 해당 높이까지 와타닥 해제되었다. 회천 8호발전소건설장에서도 어려운 공사대상의 하나인 발전기실굴착과 방대한 옹벽공크리트치기에 총력량을 집중하면서 물고기길기초굴착 및 공크리트치기전투도 립체적으로 벌리고있다. 회천 10호발전소, 회천 9호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도 언제나 구조물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건설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연건축면적이 수만㎡에 달하는 아동병원은 건설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기의 자태를 우뚝이 나타내고있다. 지난 3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구강병원에 동원된 건설자들도 기성공법으로 난반이 걸려야 한다던 골조공사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끝낸 성과를 안고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세멘트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33℃를 오르내리는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은 물놀이장과 수영장, 해수욕장들이다.

강원도 원산시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해수욕장은 시원한 바다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고있다.

마식령산줄기에서 뻗어내린 높고낮은 수려한 산발들과 조선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 바다가슴을 따라 펼쳐진 흰모래밭과 사철 푸른 소나무들이 하나로 잘 어울린 송도원해수욕장의 풍경은 말 그대로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

청신한 소나무향기, 시원한 바다바람에 끌려

송도원해수욕장에서

《우리 해수욕장은 갈마만도와 호도반도를 비롯한 여러 섬의 섬들이 바다의 세찬 물결을 막아주므로 항상 물이 맑고 잔잔할뿐 아니라 물온도도 알맞춤하여 누구나 즐겨 찾고있습니다.》

송도원유원지관리소에서 일하고있는 함만우의 말이다.

흰모래밭이 드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에 들어서니 랑만에

넘쳐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 수영을 위한 준비운동을 하고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다가운데 톱마처럼 우뚝 솟아오른 조약대들에서는 너도나도 시원한 바다물속으로 뛰어들고있고 모래밭을 따라 세워진 수많은 해양양산에서는 시원한 음료를 들며 휴식을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수영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출발할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바다에 뛰어 드는 학생들, 수영경기를 보러 온 수많은 학부모들로 하여 해수욕장은 더욱 흥성 거렸다. 승벽내기로 해염을 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불만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수욕장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높아간다.

그 어둠을 둘러보나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의 웃음, 기쁨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송도원해수욕장이다.

본사기자

늘어나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최근 공화국의 곳곳에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많이 꾸려져 인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시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아주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제적인 미림승마구락부를 일떠세우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함흥시에서는 청년공원을 비롯하여 이미 있던 공원을 개건하는것과 함께 로라스케트장과 배구장, 정구장, 룽구장, 분수못이 꾸려지게 된다. 함흥경기장앞에 건설되는 공원에도 그러한 체육시설들이 건설된다. 그리고 성천강다리위구에 건설되는 공원은 로라스케트장과 전자오락장, 정각 등이 건설되게 된다. 지금 공원건설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마감단계에서 동시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공원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인들은 《마식령속도》창조자처럼 지칠 줄 모르는 완강한 투쟁정신과 일본새로 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있다.

랑강도 예산시에도 훌륭한 공원이 건설되었다. 보천보 전투승리기념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패공정기슭에 자리잡은 공원은 새 품종의 잔디밭, 꽃밭들이 이채롭게 조성되어있다. 그리고 백두산 일대의 특유한 정서를 자아내는 수천구루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 사이로 걸음길과 도로를 내고 로라스케트장과 휴식장들도 건설하였다.

지금 예산시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체육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공원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강원도 원산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새로 건설된 해안유회장과 봉춘지구, 봉수지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곳에 새 품종의 장미를 많이 심고 그 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원산시에서는 능력이 큰 화초 온실을 꾸려놓고 해안지방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새 품종의 장미를 더 많이 번식시키고있다.

이밖에도 원산시에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송도원유원지를 비롯한 시안의 유원지를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체육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공원마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김철웅



만경대물놀이장에서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사상문화적, 정신도덕적수준이 비상이 높아지고 도처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있으며 온 나라가 과학중시기풍,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이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그러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요구를 뚜렷이 반영하고있다는데 있다.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은 문화의 주되는 형태의 하나로서 인류문명정도를 규제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늘의 시대에 더욱 비약적인것으로 되고 지식산업이 경제의 주도적인 분야로 등장하여 정보화, 무인화에 나가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및 물질적 문명개화과정은 비상이 빨라지고있다.

새 세기의 문명수준에도 달하자면 사람들은 보다 더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들이고 사회의 생산환경, 생활환경을 더욱 위생문화적이고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오늘 공화국이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은 새 세기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

새로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

사람들은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된다.

그 정당성은 다음으로 문명국건설의 실천적인 방도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그 생활력이 높을수록 향상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려면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또한 평양시를 비롯한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

정표가 규제되어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은 우선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선진적인 나라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은 문명한 인간의 품모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다. 사람

들이 높은 문화지식을 지닐 때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고 건진하게 해나갈수 있으며 건강한 체력을 지녀야 약속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생활할수 있다. 그리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추어야 사회적인간담게 옹바로 행동할수 있으며 성실하고 정열적 백하게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은 또한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

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공화국의 곳곳마다에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와 공원, 유원지들이 대대적으로 건설, 개건되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즐기고 락천적으로 생활하고있다. 평양시에 인민극장, 톱라 인민유원지, 류정원 등이 현대적으로 건설되고 많은 공원, 유원지들의 면모가 일신된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가장 정당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이 있어 문화에서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 등 모든 문화분야가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라서고 전체 인민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그날은 멀지않았다.

김영찬



물릉히 개건된 개성청년경기장의 외부와 내부

조선의 특산 개성고려인삼

수요가 높은 개성고려인삼

오갈피나무과의 여러해살이 약용식물인 개성고려인삼은 오래전부터 그 약효가 독특하여 세계적인 명약으로, 장수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시기에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해왔으므로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하였다.

이 수출되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해왔으므로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하였다.

이 수출되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해왔으므로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하였다.

신비한 효능, 높아가는 인기
개성고려인삼은 예로부터 장생(오래 사는것), 불로(늙지 않는것), 익기(기운을 돌리는것), 경신(몸을 가볍게 하는것)의 효능이 높은 명약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매우 높다.

고려의학에서는 인삼이 심장을 비롯한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 가슴앓음, 설사와 리질, 밤맛있기 등에 효과가 있으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수 있다

이 수출되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해왔으므로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하였다.

이 수출되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해왔으므로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하였다.



특색 있는 인삼음식들

인삼음식은 인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음식이다. 보혈강장제에 이름높은 인삼은 고기, 남새 등 어느것과도 잘 어울리고 다른 재료와 섞어도 고유의 맛과 향기를 잃지 않으므로 인삼으로 만든 음식은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보양음식으로 되어 있다.

보양음식으로 제격이다. 대표적인 인삼요리는 인삼 닭곰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원기가 없거나 입맛을 잃었을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에는 인삼을 넣은 닭곰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밖에 인삼추어탕, 인삼누룽지탕, 인삼신선로, 인삼김치 등이 있다. 인삼김치는 김치의 발효를 빠르게 하고 김치의 변질을 막아주며 아삭아삭한 씹을질의 성질을 오래 유지해준다.

관록 있는 인삼가공기지

장수무역회사는 공화국의 국영기업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개성고려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재배 가공하고 있는 신용이고 권위있는 회사이다. 장수무역회사는 생물학과의 학과학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로 꾸려진 강력한 연구기지와 GMP수준의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인삼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삼재배에 특이한 기후와 풍토를 가진 개성지방과 그 일대에 큰 규모의 인삼밭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개성지방은 예로부터 인삼재배의 세계적표본으로 되고 있다. 개성지방은 풍토와 기후 등 자연적조건이 인삼재배에 매우 적합할뿐 아니라 상업이 발달한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인삼재배 및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말엽부터 본격적인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이 개발되어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장수무역회사는 개성지방에 큰 규모의 인삼밭을 가지고 50여년의 인삼재배역사를

관록 있는 인삼가공기지를 가지고 있는 인삼생산기지이다. 장수무역회사에서는 개성고려인삼의 성분과 약물 및 임상부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 신비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품종의 이름난 장수인삼제품과 장수식품들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연구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인하여 조건의

관록 있는 인삼가공기지를 가지고 있는 인삼생산기지이다. 장수무역회사에서는 개성고려인삼의 성분과 약물 및 임상부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 신비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품종의 이름난 장수인삼제품과 장수식품들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연구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인하여 조건의

인기있는 인삼제품들

공화국의 장수무역회사에서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연구에 토대하여 질 좋은 장수인삼제품과 건강식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내외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성고려인삼엑스- 6년생 개성고려인삼을 가공하여 만든 홍삼엑스와 콩단백을 원재에 입혀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다. 이곳 회사의 오광원사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이 개발한 《개성고려홍삼엑스》는 국내 특허를 받았다.

개성고려인삼엑스- 6년생 개성고려인삼을 독특한 생산공정을 거쳐 원액을 추출하여 만든 천연농축물로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 주고 소화장애와 설사 및, 만성소장장애치료에 효과가 있다.

개성고려인삼차- 품질 좋은 6년생 개성고려인삼을 일정한 온도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증기로 찌워서 말려 만든 전통적인 포장용 제품으로서 기념품과 인삼건강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개성고려인삼엑스- 6년생 개성고려인삼을 가공하여 만든 홍삼엑스와 콩단백을 원재에 입혀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다. 이곳 회사의 오광원사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이 개발한 《개성고려홍삼엑스》는 국내 특허를 받았다.

개성고려인삼엑스- 6년생 개성고려인삼을 독특한 생산공정을 거쳐 원액을 추출하여 만든 천연농축물로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 주고 소화장애와 설사 및, 만성소장장애치료에 효과가 있다.

개성시에 있는 통일관에서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개성시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향취풍기는 조선식기와접형식으로 된 통일관에서 인삼추어탕, 인삼닭곰을 비롯한 인삼음식들과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평양이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주최지로 선정

얼마전 벨라리아의 쏘피아에서 진행된 제23차 국제태권도연맹총회에서는 다음번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주최지선정을 주요의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총회참가자들은 2015년에 열리게 될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는 두번 열려왔다.

1992년에 평양의 청춘거리에 새로 일떠선 태권도전당에서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이어 2011년 9월에 두번째로 평양에서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태권도모국인 공화국의 평양에서 세번째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데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나라 태권도인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맹마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태권도부들과 현관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평양에서 열리게 될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허균(1569~1618)은 1611년에 《도문대작》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먹고싶은 음식은 초고라고 하면서 흔히 황주에서 나는 초고 제일 맛있다고 하였다. 허균이 쓴 초고는 고추 대신 산초나 후추로 맵게 만든 된장으로서 고추장의 뿌리이고 전신이라고 할수 있다. 고추장은 간장이나 된장보

고추장의 역사

다도 훨씬 늦게 나왔다. 고추장은 고추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나온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 고추장은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재료나 만드는 방법에 따라 보리고추장, 깨고추장, 기름고추장, 고기고추장, 오미자고추장, 수수고추장, 약고추장, 고구마고추장 등을 들수 있다. 이렇게 고추장은 우리 선조들에 의해 개발된 기초식품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편안히 잠자기 위한 몇가지 방법

◎ 잠자기 전에 이발을 뒤는 것이다. 저녁에 치솔질을 하지 않으면 입안의 음식물찌꺼기가 세균의 작용으로 부패되어 이발을 삭게 하거나 다른 구강질환을 일으킨다. 그러나 잠자기 전에 치솔질을 하면 구강위생을 좋게 해준다. ◎ 물을 마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기 싫다고 하여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시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적은 량의 사람들이나 소변을 마시면 인차 잠들수 있다. ◎ 발을 씻는 것이다. 뜨거운 물에 발을 씻으면서 혈류를 자극하면 피로가 풀리고 잠도 잘 온다. 동시에 발에 안마를 하면 발의 질병을 예방하고 중년, 노년사람들의 변

◎ 잠들지 못하고 잤기 지 잡음이 리를 물고 떠오를 때 인차 잠들도록 하려면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구부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서 모여 있던 혈액이 엄지발가락으로 흘러들어 잠입이 사라지고 쉽게 잠들수 있다. 이와 함께 식초를 한숟가락 먹어도 효과가 있다. 본사기자

수박을 삼과해야 할 사람

무더운 여름철 수박은 더위를 막는 좋은 과일이다. 그러나 수박을 많이 먹으면 나쁜 경우도 있다. 실례로 당뇨병환자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혈당과 뇨당이 높아져 병세가 더 심해진다. 심장이 약한 사람과 만성 콩팥환자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체내의 수분이 급격이 증가하여 병세가 더 심해진다. 본사기자

산도가 낮아져 소화불량증상이 나타나고 위가 자극을 받아 과도수축을 초래하여 설사, 위의 동통이 나타난다. 입안계양환자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필요한 정수분이 수박의 리노작용에 의해 배출되며 따라서 몸이 쇠약해지고 내일이 증가하여 병세가 더 심해진다. 본사기자

봄의 협주곡 (2)

글 류준, 그림 김윤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대화가 사흘치며 흐르던 나날 원림은 역시 그 《철명이》 덕분에 동료들을 남작하게 누르고 상급을 크게 만족시켰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뒤 《실용정권》이 수물속의 독버섯처럼 솟아올랐다. 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이를 부두부두가 는 반북대결바람이 세계적 불어치기 시작했다. 그 사나운 돌개바람은 K연 구소지붕을 무심히 스쳐지나지 않았다. 하루밤 지나고나면 최야무개, 또 하루밤 지나면 김야무개와 누구가 사료를 뱉다는 풍성한 소문이 까마귀처럼 검은 날개를 펼치고 여기저기 퍼들었다. 원림은 앞에서 밀치던 뒤에서 밀치던 완강하게 일어나는 오모기마냥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서거리지도 않았다. 당장이라도 사직 당할가봐 부장부를 떠는 가련한 동료들과 달리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출근하여 말은

파제를 여유있게 해제기군 하였다. 그러 한 원림의 심중에 《철명이》가 있는 한 《오모기》는 끄떡없을것이라는 확신이 고대그리스인들이 아테네시의 가장 높은 동덕에 세운 파르테논신전 기둥처럼 든든히 자리잡고있었다. 그렇다. 꽃들이 아무리 랭기를 퍼워도 꽃들이 이만발하고 새들이 즐겁게 웃는 봄의 환희를 누르지 못할것이다. 그가 비발디의 바이올린협주곡 《사계절》 가운데서 특별히 《봄》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얼마후 돌개바람은 증증해졌다. 몇 안되는 행운아들이 마치 지옥에서 살아난것처럼 벼적 퍼들며 축배잔을 쥘고 벼적 때린림은 호젓한 집에서 《봄》을 감상하고있었다. ... 돌연 《봄》의 선율이 찾아들었다. 음식접박에서 격분에 찬 시민들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당국의 대북정책 반대한》 《맹각된 남북관계 조속히

그대로 남을것인가, 아니면 사료를 던질것인가? 생각끝에 원림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물론 그 결심의 밑바닥에 《철명이》가 놓여있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여 원림은 당국의 《대북정책》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정작 사료를 내지 못했던것이다. 《선배님,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 《혹시 저같은 신참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변용의 심정이 리해되었다. 그러면서도 원림이가 선뜻 입을 열지 않은것은 그것이 한두마디의 대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때문이다. 그 질문은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자기의 립장과 직결되어있는것이였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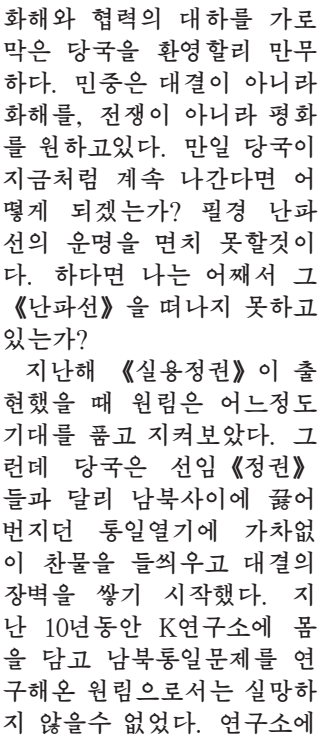
본능이 서둘러 충고하고있었다. 그러나... 원림은 긴장감을 털어버리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후배앞에서 속에 없는 소리를 한다는것은 결국 궁지놓았던 지난날을, 《오모기》를 부정하는것으로 되는것이였다. 원림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만족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지.》

잘못 사용한 무채

한 녀성이 백화점에서 방금 무채 하나를 샀는데 그 무채가 인차 못쓰게 되는 바람에 성이 독같이 올라 매대로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마사먹었나?》 판매원이 물었다. 《내가 마사먹은게 아니라 마사졌어요. 나는 그 저 얼굴에 바람을 일으키

러 그것을 흔들었을뿐이예요.》 그제야 알았다는듯 판매원이 대답하였다. 《그러니 손님은 이미 값을 문 무채가 그런 동작에 견딜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님은 무채를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얼굴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게》 다년간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넘어오는 파정에 발달된



후배가 유심히 건네다보고 있었다. 《원래?》 《선배님은 연구소일에 만족하시니까?》

그때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게》 다년간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넘어오는 파정에 발달된